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세길 58 성문교회 우:57995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성문교회 71번째 이야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에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찬송가 (429장)



지난날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니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 적어 내려갈 수 없지만 귀한 은혜 몇 가지 나눠봅니다.

주일오후 순별모임 & 학습교육

주일오후 순별모임 시간은 한분한분 나눔이 더 깊어지고 말을
잘 하지 않던 자매님도 솔직하게 잘 나누고 모두들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보듬어줍니다. 마지막 각자의 기도제목을 놓고 릴레이로
기도하는데 그 속에 눈물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순별 모임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나이가 제일 많으신 성도님의 간증에는
늘 모두가 숙연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분의 신앙의 연륜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 주일 말씀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되고있습니다.



7살 때 공원에서 만났던 동주와 이모 손잡고 교회나온 민준이가
어느새 자라서 학습식을 했습니다. 학습교육은 아이들 학원끝나는
시간에 목사님이 몇차례 만나서 기본 신앙 교육을 하고 주일에
학습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주 민준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학창시절에 어려움 겪을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 주오형제

주일 점심식사 이후 영유아부 아이들 예배가 시작되는데
피꼬리같은 목소리로 찬양과 말씀 읽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밖에서 차 마시며 교제하는 어른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그날 들은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솜씨에 모두들 웃음짓습니다.
다음세대를 이을 귀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주오형제는 장애인 일자리가 합격되지 않아서 우울증으로 식사를
거부하고 몸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 주일에배만 겨우 드렸고
아들과 함께 두분 집사님도 오전에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오형제가 건강을 되찾고 장애인 일자리도 합격한 이후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아버와의 관계도 좋아져서 축도 전에 찬양과 기도를
할때마다 아버와 두손을 꼭 잡고 찬양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주오형제가 참으로 귀합니다.
주오형제가 모든 상황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나들이 &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점심식사 후 성도님들과 교회 가까운 그린광장 코스모스밭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잎 한잎 다양한 색깔을 띠는 코스모스가 한곳에 모여 넓게 펼쳐지니 너무도 아름다워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답니다. 교회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고 어른들은 편안함으로 꽃길을 걸었습니다. 나들이 마친 후 교회 걸어와 한 개씩 먹는 아이스크림도 그날따라 더 꿀맛이었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수고로 강대상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한해의 감사를 돌아보고 나누며 예배를 드렸고 2부 순서로 성도님들과 특별한 교제를 했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주일이었습니다.



애찬식(송구영신예배)

송구영신예배가 끝나고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다른 해 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기쁨이 두배였습니다. 애찬식 때 맛난 간식을 먹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나누고, 작년 타임캡슐도 열어보고, 새해 말씀뱃기도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난후 한 가정은 집에 가지않고 목사님가정과 한해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줘서 함께 먹고 나누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다짐을 했던 성도님들의 소원과 기도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애찬식의 간식을 살수 있도록 상품권을 보내주신 귀한분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예배 방송(하겸이..) & 넷째 출산(이하준)

산후조리중인 엄마대신 예배시간에 방송시스템을 둘째와 셋째가 맡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셋째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잘 조정하는 아들 손길로 예배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 되고있어 감사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정에 축복으로 찾아온 넷째로 인해 가정과 교회에 변화가 생기고 더 많은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영아부 엄마들과 육아생활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고 주일 순모임 시간에는 교회 할머니께서 "나가 안아주고 싶소 애기 나한테 주소~" 하시며 안아주시고 식사 섬길때는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안아줍니다. 수요일 식사준비할때는 남편과 형아들이 아이를 안아주고 주일 식사준비는 다행히 아이가 밤잠을 길게 자서 그 틈에 밤과 새벽에 나누어 식사준비를 합니다. 또한 출산을 한후 많은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의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매일 찬송하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선한 것을 말하며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 부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

1.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2. 교회 자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성도들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3. 주일 오전에는 자녀와 함께 세대통합예배로, 주일 오후에는 각 부서별 성경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세워진 성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2024년에는 쉬었던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전도 할 사람과 전도에 필요한 물품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아내가 넷째를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네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